

구슬땀 흘린 농심 황금 들녘 일구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정상철 군수와 김광섭 쌀전업농강원도회장이 함께 콤바인에 올라 정암뜰에서 설악권 첫 벼베기를 실시했다.

구슬땀 흘린 농심
황금 들녘 일구다

정암뜰에는 여름 내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알곡이 누렇게 여물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가을걷이를 앞두고 여문
햇벼가 풍년을 기원하는
농심에 웃으며 화답하듯
쌀 포대 한가득 담겼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전영진씨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

민선5기 군정방침 확정...5대 실천전략 수립

우리군이 민선5기를 이끌어갈 군정목표 및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민선5기 제29대 군수취임에 따라 군정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군정 목표와 방침을 공무원과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공모한 결과 군정구호 33건과 군정방침 29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상위 5건을 선정, 2차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군정구호는 제29대 정상철 군수의 군정에 대한 비전과 철학,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우리군의 도약과 발전방향을 대내외에 제시하는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희망찬 양양' 이 최종 선정됐다.

또 군정목표를 토대로 한 실천전략인 5대 군정방침은 '감동 있는 위민행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으뜸복지', '머무르는 휴양관광', '살맛나는 농산어촌' 이 선정됐다.

군은 민선5기 군정구호 및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각종 군정 홍보물과 공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철 군수는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을 바탕으로 지역이 활력을 찾고 공평한 복지가 실현돼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양양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가 군정구호에 담겨있다"며 "민선5기 군정구호 및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시책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희망의 양양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물치~정암해안 관동팔경 길로 조성

우리군, 문화·생태 도보코스 6.13km



동해안의 절경해안 길로 인기가 높은 물치~정암해안이 관동팔경 길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군은 동해안 명승지를 잇는 관동팔경 녹색경관 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올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문화와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도보 관광코스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고성 청간장에서 울진 울송정까지 관동팔경 278.9km를 잇는 사업으로 군은 총사업비 37억8,000만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강현면 물치해변~낙산사 4km, 하조대 일원 0.93km, 38휴게소~잔교리 경

찰공원 1.2km 등 총연장 6.13km에 대해 폭 2m로 도로 전용도로를 개설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비 2억8,500만원을 들여 후진항 활어회 센터에서 구 7번 국도를 따라 정암해변 입구까지 360m 구간에 대해 데크로드 및 인도블록을 설치하는 한편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웬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이달 중 착공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의 일환으로 1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용호리 바다 조망대 사업과 연계해 해안경관을 관광하고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2억6,000만원을 투입, 하조대 해변~하조대 정자각에 이르는 탐방로를 개설하고 2013년에는 11억을 들여 잔여구간인 38휴게소에서 해안을 따라 잔교리 경찰공원까지 도보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관동팔경 도보관광길 완공되면 인도가 끊어져 불편했던 해안길이 이어져 의상대, 하조대, 죽도정 등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관광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사전거정책담당 670-2266

남애항 시외버스 중간정차 시행

관광객들 대중교통 이용편의 기대

우리군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현남면 남애항 주변에 시외버스가 정차하도록 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역주민과 남애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강릉~양양~속초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남애항 인근인 남애리 4리(미룡마을)에서 중간 정차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우리군은 지역주민들과 운수업체 등의 건수렴과정을 거쳐 시외버스 남애리 중간정차에 대한 사업계획 연장 및 요금변경신고 수리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부터 남애리 중간정차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연중 관광객들이 많

이 찾는 남애항 주변지역은 1일 시외버스 40회, 시내버스 27회가 양양~주문진~강릉구간을 운행하게 돼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남애항은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가 중간에 정차하지 않아 강릉에서 남애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로 주문진까지 이동한 후 주문진에서 하조대나 양양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승강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남애항 진입로 정비를 통해 시외버스 탑승객들이 승하차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남애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담당 670-2170

우리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부군수 등 총 10명 구성...2천만원 이상 심의

우리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 온 각종 용역의 개선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면서 관리체계가 부실해지는데다 유사한 용역을 재차 발주하는 등 예산낭비가 크게 지적됨에 따라 지난 6월 우리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각종 연구용역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후까지 심의 관리할 '우리군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 예방 및 예산 절감, 성과물의 활용도 증대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용역심의위원

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 등 실과장급 4명과 군의원, 대학교수 4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며, 건당 2천만원 이상의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각종 개발계획 수립용역, 기타 학술연구용역 등이 심의 대상이다.

군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목적,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용역 후에는 성과품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열람토록 해 신규사업 발굴 및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우리군분뇨처리시설 최우수 선정

2010환경관리공단, 최적의 운영관리 평가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우리군 분뇨처리시설은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정·운영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지난해 양양분뇨처리시설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개선 및 최적의 운영관리를 해

운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우수시설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중 지난해 기술 진단을 실시한 72개 시설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최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 포상금 250만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문의 환경관리과 시설운영담당 670-2383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거동 불편자 2,700명 대상

우리군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했다.

대상은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 65세 이상 노인과 1·2급 거동불편 장애인 등 2,700여명

으로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마을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와 거주지 사실 확인 뒤 민원서류를 직접 전달하게 된다.

민원서류 배달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장애인증명·병적증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8종 등 모두 26종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4시간 이내, 보통민원의 경우 8시간 이내로 배달하게 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양양~대만 전세기 취항 '성공적'

탑승률 83% 개항 이래 최고...교차관광 활성화 기대

강원도 정기노선 추진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4일 첫 운항에 들어간 대만 타이베이간 전세기의 성공적인 취항에 따라 설악권 관광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군과 강원도,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8월 한달 간 전세기 입국한 대만관광객은 933명, 대만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901명 등 총 1,832명으로 12회 왕복 운항해 평균 83.9%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양양에서 타이베이를 왕복하는 이번 전세기는 대만 부흥항공의 182석 에어버스 321 기종으로 4일 단위로 1회 왕복 운항하고 겨울 스키시즌인 12월1일부터는 4일 단위로 2회 운항해 2012년 3월말까지 총90회 운항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높은 탑승률을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그동안 일본관광에 나섰던 대만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



지난 4일 첫 취항에 나선 대만 부흥항공 전세기가 도착한 뒤 대만관광객들이 양양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린 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관심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군과 강원도는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강원관광을 알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광홍보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관광객 40만명 가운데 24만명이 강원도 관광에

나선 만큼 양양국제공항 전세기를 이용해 대부분을 강원도 관광으로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대만~싱가폴, 상하이~하얼빈을 잇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도 전세기 취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 전세기 취항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군은 대만전세기 취항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이 맞물려 양양국제공항의 활용도 및 위상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변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공항 활성화를 물론 동북아 관문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공항 활성화 시책을 발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아류해양국립공원.

'38선 체험관' 조성 추진

역사적 의미 관광활성화 연계

우리군이 6.25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돌파한 38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광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38선 체험관' 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38선을 역사·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선 숨길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에게 문화 콘텐츠 전시를 통해 38선 분단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이해를 돕고 38선 탐방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미니 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8,700만 원을 들여 현북면 잔교리 38후계소 주차장 부지에 38선 숨길 탐방로의 시작점을 알리는 32㎡규모의 미니 체험관을 조성

하고 38선 당시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6.25전쟁 전사자 유품 등에 대한 영상물과 사진을 전시해 역사적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38선 숨길 탐방로에 대한 노선도 모형 전시와 구간별로 역사적 의미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소개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콘텐츠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전쟁기념관,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38선과 관련한 영상 및 전시물 자료를 수집하고 체험관 건축을 위한 부지사용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로프웨이담당 670-2530

자전거타기 확산 캠페인

우리군, 자전거 타는 날 첫 운영

자전거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군이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자전거 타는 날을 맞아 관내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를 둘러보며 자전거 타기 분위기를 확산에 참여했다. 이날 정상철 군수와 고완주 부군수, 동호인 등 100여명은 군청 광장에 모여 출발 전 자전거 타는 요령과 안전교육을 받은 뒤 남대천을 지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과 쌍호탐방로, 수산항 봉수대 전망대 등을

둘러봤다.

군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하고 마을과 문화재 및 주요관광지 등 관내 곳곳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투어를 진행하면서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는 넷째 주에는 미천골 선림원지와 불바라기 약수터 일대를 투어하며 지역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는 코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자전거정책담당 670-2266

거점학교 다목적실 건립 순조

우리군, 올 2곳 완공 등 6곳 조성

우리군이 학생들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 거점학교 다목적실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읍면단위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그동안 체육관이 없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경기가 다목적실 건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2곳이 완공되고 3곳이 착공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다목적실 건립 대상은 양양읍 조산초교, 서면 상평초교, 손양면 손양초교, 현북면 광정초교, 현남면 인구초교, 강현면 강현중

등 6곳으로, 이중 올해는 강현중과 인구초교 다목적실이 오는 10월 각각 1,100㎡와 800㎡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도립공원계획 구역에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조산초등학교는 최근 인근 1,646㎡의 자연환경지구를 개발 가능한 밀집마을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 올해 다목적실 건립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서면 상평초교와 현북면 광정초교 다목적실은 각각 1,000㎡와 600㎡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하며 손양초교 다목적실은 내

년에 완공될 예정이다.군은 관내 거점학교의 다목적실 건립사업이 학교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고 특히 우천시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군은 체육 육성종목 활성화와 소규모 학교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군비 29억원을 투입, 속초양양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체육관 겸용 다목적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창의교육담당 670-2451

현대아산 면세점 오픈

화장품 등 구비 이용객 편의증진

대만 전세기 취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에 면세점이 개점하고 본격적인 공항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아산면세점은 지난 4일 대만 전세기 첫 취항에 맞춰 면세점 개점식을 갖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서비스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개점식에는 송훈석 국회의원과의 정상철 군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 김강수 속초시의회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세점 오픈을 축하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오픈한 현대아산의 면세점은 화장품과 주류, 담배, 정관장, 시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아직 다양한 상품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했던 면세점이 오픈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된데다 앞으로 공항 활성화가 가속화되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양송이채취 현장체험 인기

지난 1일 접수 외국인 100명 예약

양양송이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송이채취 현장체험이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도 벌써부터 외국인들의 예약이 몰리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외국인 현장체험에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 200여명이 접수했다.

하루 두 차례 실시되는 송이채취 현장체험은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송이산지로 이동해 송이산주와 전문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울창한 송림아래 삼림욕을 즐기면서 자생하는 송이버섯을 직접 채취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채취한 송이를 한 쪽지를 가져 갈수 있어 인기가 많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송이보물찾기 체험행사는 어린시절 소풍가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산속에 숨겨져 있는 송이와 특산품을 찾는 이벤트행사로 송이채취기간 중 1일 2회씩 열리며 송이호박볶음과 송이주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데다 인근 송이 숲에서 무료로 밤줍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송이가 나는 국유림을 방문해 송이의 생육상태를 직접 견학하면서 양양송이의 우수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송이생태견학 프로그램도 송이채취기간중 1일 2회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양양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사진전문가 / 전영진의 우리고장 돋보기



푸른 물살 가르다

제3회 전국요트대회 성료

제3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된 가운데, 10개 클래스, 17개 종목 및 계측신청을 마치고 대회 첫날인 9월 1일은 연습경기와 개막을 내렸다. 강원도요트협회는 요트경기 관람을 원하는 관광객과 요트사진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우수단 방문 응원, 불편사항 해결 등 봉사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2011 양양연어축제 확대 개최

10월 22~23 · 29~30일...주말 4일간

올해 양양연어축제가 종전보다 확대 개최된다.

군은 국내 최대 연어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에서 개최되는 연어축제를 대한 내외국인의 참여도가 높아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연어축제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어축제는 10월 22일~23일(토·일) 본행사와 10월 29일~30일(토·일) 이벤트 행사로 2주간 주말에 4일 열린다.

10월 22일~23일 본행사에는 기존 연어축제와 같이 용왕제와 연어맨손잡이체험, 재첩체험, 연어요리 맛체험행사 등 체험행사와 농악, 댄스 등 지역문화행사, 연어탁본뜨기, 연어홍보 교육관 등 상설행사장이 운영되고, 10월 29일~30일 이벤트 행사기간에는 연어맨손잡이 체험행사와 연어셀프구이장 등 체험행사위주로 진행한다.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일생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본성으로의 회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1997년 시작해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양양연어축제에는 연어맨손잡이체험신청자중 프랑스, 미국 등 외국인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외인지도가 높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 종전 2일이었던 축제를 3일로 확대했으며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올해 4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군은 어족자원이자 어머니의 강인 남대천과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큰 연어축제를 이 같이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 특성 부각효과가 다소 적은 해맞이 축제는 규모를 축소 운영해 탄력적인 축제 운영으로 지역관광특수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연어축제를 외국인 참가객을 위한 통역도우미 배치, 연어 탁본뜨기 부스 확대, 연어가공식품 부스 입점, 식당가 운영시간 연장 등 행사장 운영을 개선해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6강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 투자연구소장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미래죠 그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가? 당연히 불안하고 조바심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미래의 상황을 단언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악재, 바로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를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리스크,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한지 알수 없죠, 두 번째로 건강 리스크, 병원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감소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 리스크, 우리나라만큼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드물 겁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 중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하나씩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너무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100세 도달가능성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1958년생은 남성 43.6%, 여성 48%, 1971년생은 남성 47.3%, 여성 48.9%가 100세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즉, 현재 40대의 절반 가까이가 100세에 거의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는 혼자 살아야 하는 10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편과의 수명차이와 나이 차이를 합치면 약 10여년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낙산사장학금 전달

대학생 4명에 6백만원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법인)이 지난 5일 오전 10시 우리군을 방문해 군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낙산사 무문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우리군 인재육성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대학교 정지우 학생 등 4명에게 6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남까지 5일간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열려 푸른 물살을 갈랐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 요트국가대표 4차 선발곡 33개부에 전국 초·중·고대학일반부 220팀 2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빛 물살을 가르며 기량을 겨뤘다. 8월31일 오후 출전종료 6시 30분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9월2일부터 5일까지 경기를 치른 후 9월5일 오후 3시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대대원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해양환경정 2대로 매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아 요트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해양환경사 2리군은 수산항의 편리한 시설 홍보를 위해 '실과소 1선수단 결연'을 추진, 선수단을 환영하고 현지인내외 지역 업소 추천, 선었다.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서 충동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게 평균수명을 산정해서 안정적으로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후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산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의 부채가 많은 위험한 자산구조를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미국 35:65, 일본 41:59입니다만 우리나라는 78:22입니다. 부동산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구조가 왜 위험할까요? 미국,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 파산, 주택과잉공급, 부동산거품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침체되어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자산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한 곳에 재산을 집중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50~60대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5:5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겁니다. 땅부자인 가난

뱅이들 말입니다.

예전 두 자릿수의 금리시대엔 한달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예금하는 것이 보편적인 재산증식방법이었습니다만, 다시 두 자릿수의 금리시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서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중 금융자산운용은 펀드 중심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나이, 재산상태, 본인의 투자성향 등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급여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은 투자대상의 분산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부동산, 주식, 채권, 환물 등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선 재테크 보다는 재취업을 먼저 생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7강 안내

- 일 시 : 2011. 9. 28 (수) 15:0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
- 강 사 : 김혜남 한의원장
- 강연주제 : 내 몸을 고치는 한방상식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16. 잠자리

1) 앉은 자리 쏹쏹
앉은 자리 쏹쏹

붙잡으면 산다
잡히면 죽는다
멀리 가면 죽는다
머리카락 빠진다

앉은 자리 쏹쏹
앉은 자리 쏹쏹.

2) 알 나라 딸 나라
알 나라 딸 나라.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빨간 고추잠자리가 뒷밭 화초에 고추 대에, 옥수수대에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알맞은 거리에서 오르내리다 잠깐 앉습니다. 앉은 자리가 흔들거립니다. 그때 균형 잡으려 날았습니다. 앉은 몸짓 불만합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갑니다.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넓게 펴고서 '알 나라 딸 나라.'를 몇 번이고 불러봅니다. 신기하게도 줄줄이 알을 낳는 것이니겠습니까?
또 손자의 흥얼거림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할머니도 그렇게 동작을 취합니다. 참 좋은 풍경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정겨운 「가족애」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집니다.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 한다면 세상 우리네 마음의 조점, 어디가 제일인지 다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봉수대 전망대 개방 '발길'

수산항 해양관광도시 경쟁력 높여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수산항에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봉수대 전망대가 개방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11일 수산항 요트마리나 인근 기암절벽을 오르는 옛 봉수대 길과 전망대 개방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에 준공된 수산항 봉수대 경관전망대는 총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데크로드 200여 m와 전망대 2곳, 경관웬스 100m 및 탐방안내 표지판과 난간 안전시설을 설치, 요트마리나로 활성화되고 있는 해양관광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수산항 방파제부터 봉수대까지 연계



되는 전망로드와 함께 탁 트인 동해바다와 대명 솔비치 콘도, 수산항 요트마리나를 오가는 요트와 낚시배 등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 포인트가 조성되는 등 관광객 유인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670-2151

맞춤형 산골축제 '최고'

서면 해담마을 돌탑쌓기 축제 인기



피서객기가 실종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6~7일까지 서면 서리리(이장 김영철)에서 열린 '해담마을 돌탑쌓기' 축제가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맞춤형 여름축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담마을은 이틀간 마을을 찾은 도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돌탑쌓기를 비롯해 돌화분 만들기 대회, 짬뽕공예체험, 산천어맨손잡기 등 특별한 산골체험 행사를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천혜의 계곡과 들판을 거침없이 달리는 수륙양용차 타기, 4륜 오토바이, 활쏘기, 해담마을노인회에서 직접 만든 뽕묵타기 등 해담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여름 레저체험도 이색이벤트로 각광받았으며, 야간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정겨운 여름추억을 선사했다.

추억의 영화제 400명 관람

철광지에서 상영된 추억의 영화제가 400여명의 관객들이 다녀가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면 상승2리(이장 강동삼) 철산마을이 마련한 추억의 영화제가 지난 12~13일까지 이틀간 과거 번영기를 구가할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다.

철산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영상자료



원의 협조를 받아 상영한 추억의 영화제가 옛 향수를 되살리며 인기리에 막을 내리자,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영화제로 꾸며갈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낙산 등 경계지역 일원화

우리군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일부를 변경한다.

군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건물, 도로 등 지형물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한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학교, 택지, 아파트 등 동일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 구거,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으로 법정 및 행정리의 경계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중 남문리 13-1번지 일원 12필지를 구교리로 편입해

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조산리 고려대학교수련관의 건물 일부가 양양읍 조산리와 강현면 주청리로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주청리 2-37번지 일원을 조산리로 편입하는 읍·면간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특히 리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상가 건물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낙산상가지구는 도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측량성과에 의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 등에 대한 확인·대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670-2151

귀농귀촌 희망자 김장채소심기

체험학교 80명 대상 호응



우리군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8월 20일 현북면 어성전2리에서 김장채소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및 전원생활 등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체험학교의 합동교육의 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40명의 교육생들은 1,700㎡의 밭에 직접 비닐 멀칭 작업도 하고 두둑에 배추모종을 심으면서 채소재배의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을 통해 예비 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면서 처음 해보는 배추농사와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운 영농체험 시간을 보냈다.

군은 이번에 심은 김장채소밭에서 수확되는 배추, 무로 11월 26일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군의 귀농귀촌 체험학교는 80여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과수, 표고, 송전떡, 허브, 전원생활 등 5개반으로 지난 6월 개강해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8회로 펜션운영, 생태건축, 목공실습, 김장채소심기 등의 공통교육과 반별 현장 전문교육 등 8회를 진행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670-2336

남대천 은어포획 특별단속

10월15일까지 산란기 포획금지

우리군이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는 10월15일까지를 불법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대천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하천에서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일제 단속기간을 통해 불법어로행위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670-2742

오산리 덧무늬토기 일반 공개

21년 만에 고향 귀환...토제인면상도 협의 중

최고(最古) 신석기유적인 오산리선사유물을 대표하는 덧무늬토기가 21년 만에 고향에 귀환했다.

우리군은 지난 1990년 서울대박물관 조사단이 오산리선사유적지 발굴 작업에서 출토한 신석기시대 덧무늬토기를 8월 24일 인수하고 26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오산리의 덧무늬토기는 호형(壺形)으로 겉면에는 삼각집선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며, 바닥에는 나뭇잎 흔적이 남아있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덧무늬토기로 대표되는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던 2점을 박물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침내 고향인 오산리에 가져오게 됐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이번에 덧무늬토기까지 인수함으로써 (재)에백문화재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분산 보관해오던 석기, 옥, 토기를 포함해 총 1,161점에 대한 인수가 완료, 명실상부한 선사유적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군은 오산리선사유물 중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개관 이후 지금껏 복제품이 전시되고 있는 토제인면상 등 일부 유물에 대해서도 인수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대여절차를 통해



인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학술적 가치가 큰 온전한 형태의 덧무늬토기를 이번에 인수해 전시함으로써 전문적인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된 만큼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박물관을 알리고 관람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0월말까지 포획 활동

우리군이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대상 동물로 정하고 한국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 양양군지부와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지회 회원 등 15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지난 3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에 나섰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유해 야생동물 출몰 신고 시 2시간 안에 즉시 출동, 포획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확기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월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요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및 역할, 포획동물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양양군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200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멧돼지 45마리, 고라니 92마리 포획 등 총 110건의 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31곳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퇴치기설치를 지원했으며, 과수, 벼,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귀농인 지원 강화한다

상담센터 설치 등 조례제정

우리군이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양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29일 입법 예고했다.

군은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업 및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귀농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위원회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 귀농인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심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주택 수리비, 농어촌 진흥기금 및 우리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농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임대농지 및 휴경농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해 귀농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과 애로·고충사항 해결, 컨설팅 지원 등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5가구 이상의 귀농인 마을을 조성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지원은 물론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479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뀐드림론(구: 전환대출) 안내

1.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특수채무자에 해당 하는 분으로 소득 또는 직업이 있는 분.

연간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및 기초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특수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보육비용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2. 전환대상 고금리채무는?

등록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중인 연 금리 20%이

상인 채무.

※ 다만, 이자 및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대출조건)은?

≡ 대출금액 : 최저 50만원, 최고 3천만원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신청인이 1년 단위로 선택)

≡ 대출이율 : 연 10% ~ 12.5%(평균 연 11%,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특수채무자는 연 8.5%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사 033-640-3413, 3414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박물관 답사 참가자 모집

■ 답사내용

회차	일정	답사지	대상
1회	9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성인(선착순 30명내외)
2회	10월 8일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애니메이션, 박물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초등학교 3학년이상 자녀를 둔 지역주민 등 (선착순 30명 내외)
3회	11월 12일	진전사지, 오산리박물관, 선림원지, 주전골	

■ 참가신청 방법

답사일정	답사지	접수기간	접수방법	구비서류	접수처
9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8. 22 ~ 9. 3	직접방문 또는 FAX(670-2549) 전화(670-2446)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10월 8일	국립춘천박물관외2곳	9. 19 ~ 10. 01			
11월 12일	우리지역유적지	10. 17 ~ 11. 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현남면 공고 제 2011 - 2 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현 남 면 장

1. 사업명 : 『김형중』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62-2번지
3. 도로길이 : 22.0 m
4. 도로폭 : 3.0 m
5. 도로면적 : 68.21 m²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227.0	68.21		
현남면 후포매리	62-2	대	227.0	68.21	김형중	

양양군종합운동장부지 분묘이장 안내문

이 지역은 양양군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시설공사를 위해 부지내에 소재한 사설묘지와 공동묘지 내 분묘를 아래와 같이 이장하고자 하오니 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분묘이장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분묘소재지 : 공동묘지(성내리105번지, 구교리 160번지, 171번지) 및 주변 사설묘지
- 분묘수량 : 400기
- 신고기간 : 2011. 1. 19 ~ 2011. 9. 30
- 신고장소 : 양양군문화관광과 ☎ 670-2254
- 구비서류 : 분묘연고자 증빙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
- 이장기간 : 2011. 2. 1 ~ 2011. 10. 30

양 양 군 수

제4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안전분야등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서비스확대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특히, 내수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실현, 육아·보육, 나눔·봉사 등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거주 외국인 공모기간
- 2011년 7월 11일(0시)~9월 30일(24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홈페이지 (oklife.go.kr) · 접수문의 (02) 2100-1758

· 시상내역

- 대통령상 5건(부상금 각 200만원)
- 국무총리상 5건(부상금 각 100만원)
- 행안부장관상 50건(부상금 각 10만원)

· 수상자 선정기준

- 2011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 심사 (이후 접수 제안은 2012년 심사)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민간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작 심사 및 수상자 선정 후 12월말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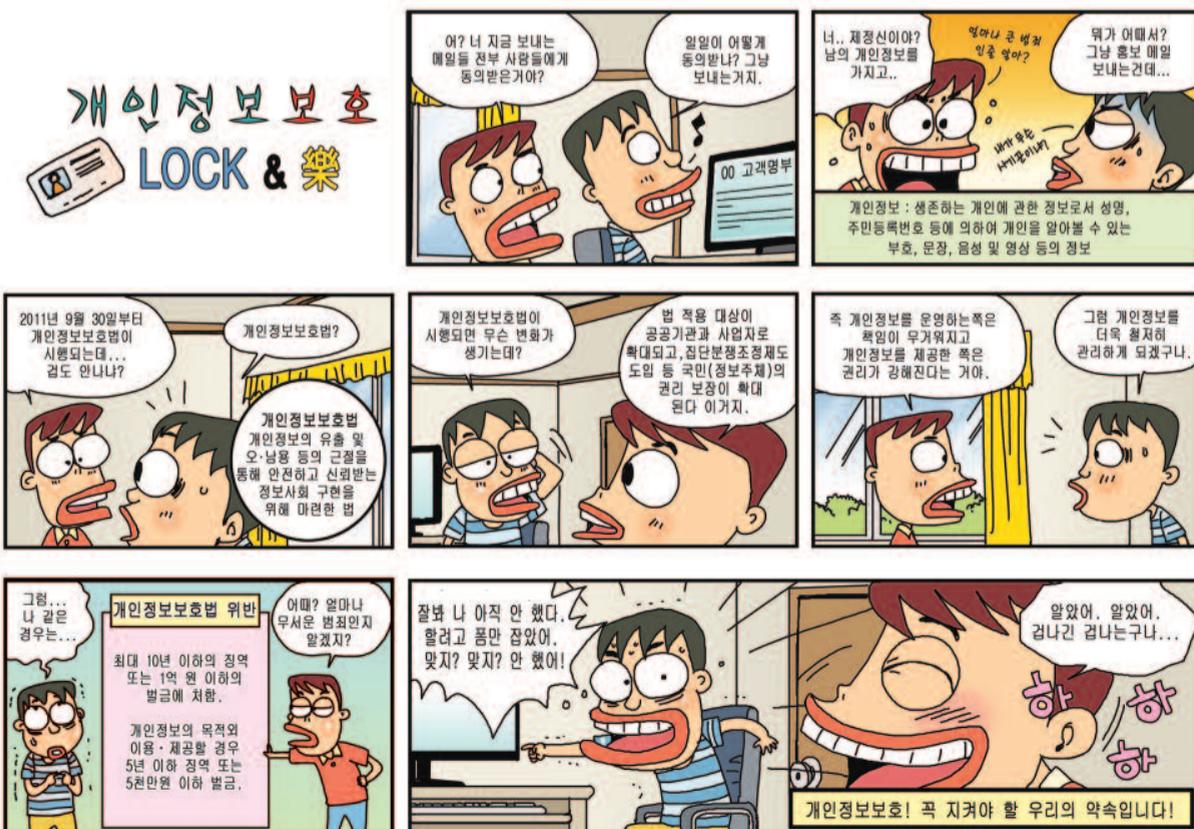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에게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입니다.

- ▶ 상담 지원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출장)상담
- ▶ 의료 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 의료비 지원
- ▶ 법률 지원 : ※형사조정 ※정보제공 ※수사기관 법정동행
- ▶ 경제적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 ※경제적지원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법무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사단법인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지원센터
연락처 : 033)638-1111 / fax:033)638-1114
/www.sokb.kr/전국콜센터:1577-1295
주 소 : 속초시 중앙로209 (수복탑 건너편 시내버스 정류장 앞(1층))

개인정보보호 LOCK & 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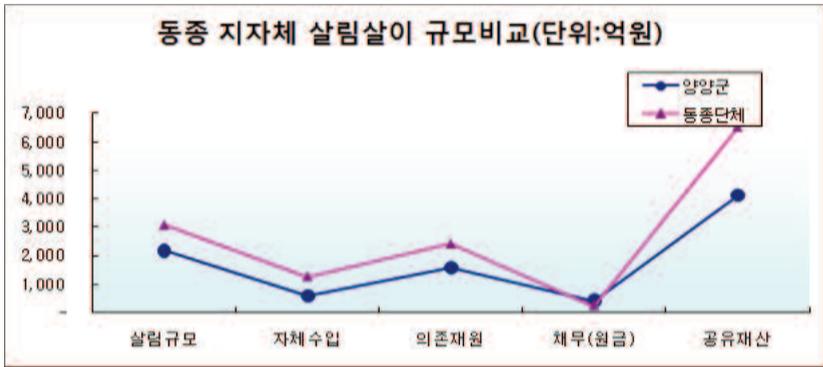


2011년 양양군 지방재정공시

◆ 우리 군의 '10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2,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4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부담액은 40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1,572억원입니다.
- 각종 재해복구 및 '09년 재정부족분, 상수도 확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위한 우리군의 채무는 422억원으로 국비지원상환 및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군비 상환 실질채무는 184억이며, 군민 1인당 실질채무액은 65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0년도에 토지, 건물 등 1,173건(25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건물 등 41건(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12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701억원)보다 1,525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262억원)보다 65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413억원)보다 841억원 적습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34억원)보다 188억원이 많으며 국비 상환 채무액 115억원, 실수요자부담 채무액 12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채무는 184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액 4,125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6,542억원)과 비교 하면 2,417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10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16.31%이며(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64.84% (전국 평균 76.7%)입니다.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동종단체에 비해 규모는 적으며, 국내 경기 여건 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 안내

○ 경찰에서는 추석절 전후 많은 귀성객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사고,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등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사건사고 없는 즐거운 추석절을 보냅니다.

▶ 단속기간 : 2011. 8. 15 ~ 9. 15

▶ 단속대상 : 경범죄처벌법위반(오물투기, 자연훼손 등)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실천으로 즐거운 우리명절
추석절 전후 기초, 교통질서 등 집중단속
속 초 경 찰 서 장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양양송이와
사랑 愛 바지다



양양송이축제 2011.9.29(목) ~ 10.3(월) 양양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8송이산지

재미있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실속있게 구입하자!
외국인송이채취체험기간 2011. 9. 15 ~ 10. 14 참가신청 양양군청문화관광과 033)670-2723~4
주관 양양송이축제위원회 주최 양양군 http://song-i.yangyang.go.kr



양양군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폰으로 즐기기

2011년 양양송이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011년 9월 25일(일) 1일전

장소 양양군 남대천 일원 MTB코스

주최 양양군

주관 한국 산악자전거 협회

경기종목 헬린저(CH)

신청기간 2011년 8월 8일 ~ 9월 7일

접수처 한국 산악자전거 협회
Tel.02)962-4012
http://www.kmtb.or.kr

문의처 한국 산악자전거 협회
Tel.02)962-4012
양양군 T.033)670-2269

후원 양양군의회,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강원도민일보,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